

보도시점 2026.5.20.(수) 배포 2026.5.20.(수)
(사진 16:00 이후)

조달청,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공공조달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 양해각서(MOU) 갱신... 중남미 조달행정 혁신 로드맵 구축 본격화
- 1차 사업 성공 기반으로 중남미 조달 체계 진단 및 로드맵 수립, 역량 강화 등 협력 확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 5월 20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과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과 앙드레 소아레스(André Soares) 미주개발은행(IDB) 수석비서실장이 서명한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조달청과 IDB의 1차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자조달 및 조달행정 노하우를 나누고 중남미 국가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달청과 IDB는 1차 협약(2023~2026년)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조달 발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다.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에 전자조달 성숙도 진단을 바탕으로 한 개혁 로드맵을 제공했다.

또한, IDB와 공동으로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을 2회 개최하여 14개국 39명의 중남미 고위급 조달공무원들에게 글로벌 공공조달 트렌드와 중소기업 육성 정책, 조달인력 역량강화 방안 등 공공조달 전반의 노하우를 공유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2차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협력 프로젝트(Technical Cooperation)'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조달청은 K-공공조달 전반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조달 우선순위인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중남미 국가별 조달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개혁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공조달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품지연, 품질관리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계약 관리 표준 가이드 등을 개발하며, 이를 현지에 시범 적용하여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으로 국제 공공조달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분석 등 정책 연구를 추진하여 중남미 공무원들의 조달 전문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조달 투명성 등이 크게 개선될 경우, 우리 기업의 진출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MOU 갱신은 지난 3년간의 성공적인 협력을 발판 삼아 중남미 지역의 공공조달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IDB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통해 나라장터 등 한국형 전자조달 경험을 중남미 각국과 공유하고, 글로벌 조달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관	책임자	과 장	김혜경	(042-724-7554)
		담당자	사무관	신봉기	(042-724-7470)